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1.29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asset.com

인도

니파 바이러스 발생, 인도 시장 영향은?

- 인도 서벵골주 니파 바이러스 감염 사례 확인 및 인도 정부 방역 대응 강화
- 니파 바이러스: 코로나와 달리 전국적 유행이 아닌 지역 제한적 발생 특성
- 인도 주식시장 및 여행 업종에 대한 영향 제한적 판단
- 인도 비중 확대 전략 및 인디안 호텔 컴퍼니 매수 의견 유지

19년 만에 니파 바이러스 인도 재발병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서벵골주(West Bengal)에서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보건 당국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확진 사례는 2026년 1월 중순 이후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중증 상태로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은 약 196명으로 확인되어 격리 및 경과 관찰 대상에 포함되었다.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보건기관에서는 현재까지 검사 대상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도 중앙정부와 서벵골주 정부는 확진자 이동 경로 추적과 접촉자 격리를 핵심으로 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격리 치료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실험실의 진단 역량을 확대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서벵골주 사례는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니파 바이러스 감염으로, 현재로서는 서벵골주 일부 지역에 국한된 소규모 집단 발생 형태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전국적 확산이나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감염 사례와 관련해 태국, 네팔, 대만 등은 1월 25일부터 서벵골주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건강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항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니파 바이러스: 국지적 아웃브레이크 형태로 관리

니파 바이러스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신종 감염병이 아니다. 과거부터 존재해 온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특정 조건에서만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해 왔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대규모로 확인되었다. 당시 돼지를 매개로 인간 감염이 발생했으며, 수백 명이 감염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2001년부터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반복되어 왔다. 인도에서는 2001년과 2007년 서벵골주, 2018년 이후 케랄라주 등에서 제한적인 아웃브레이크(outbreak)가 보고된 바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전파 방식과 확산 구조가 다르다. 호흡기를 통한 공기 전파 감염병이 아니며, 박쥐 등 동물 매개 감염 또는 감염자와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이로 인해 감염 속도는 코로나19 대비 현저히 낮다.

다만 감염될 경우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으며, 뇌염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니파 바이러스는 과거 발생 사례에서도 대규모 확산보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아웃브레이크 형태로 관리되어 왔다. 감염자 발생 시 즉각적인 격리와 이동 제한을 통해 전파가 차단되는 구조이다.

표 1. 니파 바이러스 과거 아웃브레이크 사례 정리

구분	연도	지역	확진 사례 규모	사망 및 기타 결과
말레이시아 대규모 발생	1998 ~1999	말레이시아(및 싱가포르 확대)	약 265명 보고	약 105명 사망; 돼지 매개 대규모 발병으로 농가·산업 피해 발생
방글라데시 반복 발생	2001 이후	방글라데시 여러 지역	연간 소규모 반복적 발생 있음(수십~수백명 누적)	높은 치명률 지속, 누적 수백명 사망(치명률 40~75%)
인도 서벵골주 아웃브레이크	2001	인도 서벵골주	소규모 보고	다수 사망 발생; 병원 내 전파 등 확인
인도 서벵골주 아웃브레이크	2007	인도 서벵골주	소규모 보고	병원 관련 전파 사례 포함
인도 케랄라주 발생	2018	인도 케랄라주	약 19명 보고	17명 사망, 일부 격리 및 검사 확대
인도 케랄라주 발생	2021	인도 케랄라주	소규모 보고	사망 및 격리 사례 보고
인도 케랄라주 발생	2023	인도 케랄라주	소규모 보고	사망 보고 등
인도 서벵골주 최근 보고	2026	인도 서벵골주	소규모 보고(수명)	현재 집단 발생 관리 중, 전국적 확산 없음

자료: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니파 바이러스 인도 내 과거·최근 발생 지역

자료: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니파 바이러스 발생 지역, 주요 관광지와 상당한 거리

서벵골주는 콜카타(Kolkata), 다르질링(Darjeeling), 샨다반스(Sundarbans) 등 역사·문화·자연 관광 자원을 두루 보유한 지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 수요가 모두 높은 인도 내 대표적 관광 주(state)이다. 2023–24 회계연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약 320만 명이 방문해 인도 내 상위권 유입 규모를 기록했으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1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300만 명을 상회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관광 역시 문화·자연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높은 방문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합산해 약 1억 8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 관광 구조로 인해 서벵골주는 인도 전체 여행 시장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니파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은 서벵골주 내에서도 북부 국경 인접 지역으로, 주요 관광·비즈니스 거점과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콜카타와는 약 550~600킬로미터, 샨다반스와는 약 7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다르질링과도 약 60~80킬로미터의 거리가 존재한다. 감염 사례가 주요 관광 동선과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는 데다, 과거 니파 바이러스 발생 사례에서도 지역 단위의 방역 대응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병이 서벵골주 전반의 여행 수요나 인도 전체 관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주식시장 및 여행 업종 영향 분석

니파 바이러스 발병이 인도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사례에서도 전국적 이동 제한이나 장기적인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진 전례는 없었다. 전파력이 낮고 발생 지역이 국지적인 점을 감안할 때, 거시 경제나 기업 실적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여행 업종 역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니파 바이러스는 공기 전파 감염병이 아니며, 과거에도 전국 단위의 이동 제한이나 국제선 통제로 확산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공, 호텔, 여행 수요 전반에 구조적인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발병 지역 인근에서는 단기적인 심리 위축에 따른 예약 지연이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인도 투자 전략

인도 비중 확대 유지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 거시 경제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장기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아울러 인도 소비재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 역시 유지한다.

인디안 호텔 컴퍼니(IH IN, 매수): 단기 변수로 숨 고르기, 회복 스토리는 유효

동사의 FY3Q26 매출과 EBITDA는 각각 282억 루피(+11.3% YoY), 104억 루피(+8.1% YoY)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하향 조정된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효과에 더해 주요 호텔의 대규모 개보수 지속과 지난해 12월 인디고 항공 사태에 따른 기업 출장 수요 위축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 성장 둔화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며, FY3Q26 EBITDA 이익률은 전년 대비 1.1%p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FY27년에는 인도 호텔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소비 회복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FY27년 매출과 EBITDA는 각각 전년 대비 13.8%, 20.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객실 가동률 및 객단가 상승과 규모의 경제 효과로 EBITDA 이익률은 37.7%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주가는 고점 대비 17% 하락해 FY27년 기준 P/E 35.5배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경기소비재 기업 대비 약 50% 할인된 수준이다. 중장기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감안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과도한 할인으로 판단되어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